

청년층의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¹⁾

한진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데이터센터 전문연구원)

- 청년층 여성은 첫 일자의 직업이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에 집중되어 있으나 청년층 남성은 모든 직업이 여성에 비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은 기능·기계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그 비중이 낮음. 그리고 여성과 남성 모두 비기간제상용에 비해 기간제인 경우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높음.
- 청년층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 상용일 때 현재 일자리도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는 69.9%이지만 첫 일자리가 기간제일 때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는 36.6%로 33.6%p의 차이가 있음.
 - 여성과 남성 모두 첫 일자를 기간제로 시작한 경우 비기간제상용직의 이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은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비기간제상용직과 같은 일자를 첫 일자리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취업 준비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요인일 수 있음.
 - 일자리가 없으나 일자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응답은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에 비해 기간제가 더 높고,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이 더 높아 일자리가 없지만 구하지도 않은 청년층의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1) 본 원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데이터센터에서 작성한 "KWDI 성인지통계 리포트 23-4(청년 첫 일자리 현황: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통계리포트 일부 발췌·정리한 것임. 원문은 성인지통계 홈페이지(<https://gsis.kwdi.re.kr/gsis/kr/board/BoardDetail.html>)에서 확인 가능함.

들어가며

- 첫 청년층이 학교 생활을 마치고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경제활동이라는 생애주기 상 기대되는 과업을 이행하는 것이고 이후에 기대되는 결혼, 가족형성 등을 실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사회적으로 보면 장기간에 걸쳐 투자된 인적자원이 사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사회 전체적인 이익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중노동시장으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분리되어 있는데, 1차 시장과 2차 시장 간 이동이 활발하지 못함. 2차 노동시장이라는 비교적 좋지 않은 여건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경력이라는 의미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그러나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로 구성된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이를 위한 시간, 비용 등을 더 많이 투자하게 됨.
- 인적자원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결국 청년층의 부모세대에게는 부담이고, 청년층에게는 취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후에 기대되는 결혼, 가족형성 등도 지연될 수 밖에 없어 개인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됨.
- 이러한 한국 사회의 노동 시장 특성에 따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년층의 첫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고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를 교차하여 살펴보고자 함.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통해 20-34세 청년층의 첫 일자리 현황을 살펴봄.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는 청년층의 취업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매년 5월에 실시되고 있음. 조사 대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5월 15일 기준 만 15-34세 연령층임(통계청(2023.7, 25쪽)2).
 - 본 리포트에서는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연령은 20-34세로 제한하여 분석하며,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를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로 구분하여 성별로 분석하였음.
 - 비기간제상용 : 상용근로자이면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 기간제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그리고 일용근로자주요한 분석 내용으로 20-34세 청년층의 첫 일자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20-34세 청년층의 첫 일자리 현황(첫 일자리 당시 취업형태, 전일제 여부, 월평균급여액, 직업별 분포, 첫 일자리에 진입하기까지 기간)을 살펴봄.
 - 변수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는 첫 일자리 진입 시점이 아닌 조사 시점 기준임.

변수	설명
고용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기간제 상용(상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 기간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금근로자 모두)
인구통계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여성, 남성) • 연령(20-24세/25-29세/30-34세) • 교육정도(고졸이하/전문대졸/대졸이상) • 혼인상태(미혼/기혼/이혼사별별거)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는 조사시점 기준임.
첫 일자리 당시 취업 형태	비기간제상용, 기간제,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일자리 특성	직업별 분포
진입 및 유지 기간, 사유	직업에 진입하기까지 기간 (개월) 첫 직장 유지기간 (개월) 첫 직장 퇴직 사유

청년층 첫 일자리 직업 분포

■ 첫 일자리의 직업과 관련하여 청년층 남성은 여러 직업에 고르게 분포한 반면 청년층 여성은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기능·기계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 낮음

● 20-34세 여성은 첫 일자리의 직업이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에 집중되어 있으나 남성은 모든 직업에 여성에 비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은 기능·기계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그 비중이 낮음. 그리고 여성과 남성 모두 비기간제상용에 비해 기간제인 경우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높음.

- 2023년 20-34세 여성의 첫 일자리는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음. 비기간제상용 여성은 기간제에 비해 관리자·전문가(14.0%p), 사무 종사자(3.8%p)의 비중이 높고, 기간제 여성은 비기간제상용에 비해 서비스·판매종사자(12.8%p), 단순노무 종사자(4.3%p)의 비중이 높음.

• 2023년 20-34세 비기간제상용 여성의 첫 일자리 직업은 관리자·전문가 771천 명(36.5%), 사무 종사자 687천 명(32.6%), 서비스·판매 종사자 520천 명(24.6%) 순으로 높음. 취업소요기간을 보면 비기간제상용은 단순노무종사자 18개월,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15개월, 사무종사자 12개월, 서비스·판매 종사자 9개월, 관리자·전문가 8개월이 소요됨.

• 2023년 20-34세 기간제인 여성의 첫 일자리 직업은 서비스·판매 종사자 523천 명(37.4%), 사무 종사자 403천 명(28.8%), 관리자·전문가 316천 명(22.5%) 순으로 높고, 단순노무종사자 107천 명(7.6%),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50천 명(3.6%)로 낮은 편임. 취업소요기간을 보면 비기간제상용은 단순노무종사자 27개월,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19개월,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각 10개월이 소요됨.

- 2023년 20-34세 남성의 첫 일자리는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를 비교했을 때 기간제에서 서비스·판매 종사자(15.9%p)와 단순노무종사자(11.8%p)의 비중이 높고, 관리자·전문가(10.7%p)와 사무종사자(10.4%p)는 기간제에 비해 비기간제 상용이 높음.

- 2023년 20-34세 비기간제상용 남성의 첫 일자리 직업은 관리자·전문가 503천 명(25.8%),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441천 명(22.6%), 서비스·판매 종사자 427천 명(21.9%), 사무 종사자 412천 명(21.1%) 순으로 높음. 취업소요기간을 보면 비기간제상용은 단순노무종사자 21개월, 서비스·판매 종사자 16개월, 사무종사자와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각 14개월, 관리자·전문가 13개월이 소요됨.
- 2023년 20-34세 기간제인 남성의 첫 일자리 직업은 서비스·판매 종사자 557천 명(37.8%), 단순노무종사자 295천 명(20.0%),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236천 명(16.0%), 관리자·전문가 223천 명(15.1%), 사무 종사자 158 천명(10.7%) 순으로 높음. 취업소요기간을 보면 비기간제상용은 단순노무종사자 16개월,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15개월, 서비스·판매 종사자 12개월, 사무종사자 11개월, 관리자·전문가 10개월 순으로 높음.

- 여성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인 경우 모두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고, 남성은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음.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인 경우 모두 비교적 모든 직업에 고르게 분포하나 여성은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에 집중된 편임.

- 2023년 20-34세 비기간제상용의 첫 일자리 직업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무 종사자(11.5%p), 관리자·전문가(10.7%p), 서비스·판매 종사자(2.7%p)가 더 높고, 여성에 비해 남성은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19.6%p)와 단순노무종사자(4.9%p)가 높음.
- 2023년 20-34세 기간제의 첫 일자리 직업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무 종사자(18.1%p), 관리자·전문가(7.4%p)가 더 높고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12.4%p)와 단순노무종사자(12.4%p)는 남성이 더 높음. 남성과 여성 모두 기간제에서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비중은 높지만 차이는 0.4%p로 매우 적음.

<표 1> 성별 비기간제상용여부별 첫 일자리 직업 및 직업별 취업소요기간

(단위 : 천 명, %, 개월, %p)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취업소요기간 (2023)			여성- 남성 비율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비기간 제상용	관리자·전문가	771	36.5	503	25.8	1,274	31.4	8	13	-5	10.7
	사무 종사자	687	32.6	412	21.1	1,099	27.1	12	14	-2	11.5
	서비스·판매 종사자	520	24.6	427	21.9	947	23.3	9	16	-7	2.7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63	3.0	441	22.6	504	12.4	15	14	1	-19.6
	단순노무 종사자	70	3.3	161	8.2	231	5.7	18	21	-3	-4.9
	전체	2,110	100.0	1,950	100.0	4,060	100.0	10	15	-5	-
기간제	관리자·전문가	316	22.5	223	15.1	538	18.7	10	10	0	7.4
	사무 종사자	403	28.8	158	10.7	561	19.5	10	11	-1	18.1
	서비스·판매 종사자	523	37.4	557	37.8	1,081	37.6	10	12	-2	-0.4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50	3.6	236	16.0	287	10.0	19	15	4	-12.4
	단순노무 종사자	107	7.6	295	20.0	402	14.0	27	16	11	-12.4
	전체	1,400	100.0	1,475	100.0	2,876	100.0	12	13	-1	-
전체	관리자·전문가	1,086	30.9	726	21.2	1,813	26.1	8	12	-4	9.7
	사무 종사자	1,091	31.1	569	16.6	1,660	23.9	11	13	-2	14.5
	서비스·판매 종사자	1,043	29.7	985	28.7	2,028	29.2	10	14	-4	1.0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113	3.2	678	19.8	790	11.4	16	15	1	-16.6
	단순노무 종사자	177	5.0	456	13.3	633	9.1	24	18	6	-8.3
	전체	3,511	100.0	3,425	100.0	6,936	100.0	11	14	-3	-

주 : 1) 가중치 적용

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0.2%(12천 명), 여성 0.0%(1천 명), 남성 0.3%(11천 명)로 분석에는 포함시켰으나 결과표에는 제시하지 않아 제시된 각 항목의 합이 100.0%가 아님.

자료 :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층 비기간제상용 여부별 첫 직장 유지 기간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이면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여성 49개월, 남성 44개월로 약 4년을 유지하나 기간제이면서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여성 15개월, 남성 14개월 유지함.

● 일자리 유지 기간은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이면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의 여성이 49개월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같은 조건의 남성이 44개월을 유지함.

- 여성의 일자리 유지 기간은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이면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49개월, 비기간제상용이면서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24개월, 기간제이면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23개월, 기간제이면서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15개월 순으로 높음.

• 여성은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유지 기간은 비기간제상용 49개월(756천 명), 기간제 23개월(178천 명)로 비기간제상용의 유지기간이 26개월 더 길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유지 기간은 비기간제상용 24개월(1,354천 명), 기간제 15개월(1,223천 명)로 비기간제상용의 유지기간이 9개월 더 길다.

- 남성의 일자리 유지 기간은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이면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44개월, 비기간제상용이면서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23개월, 기간제이면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21개월, 기간제이면서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14개월 순으로 높음.

• 남성은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유지 기간은 비기간제상용 44개월(820천 명), 기간제 21개월(160천 명)로 비기간제상용이 23개월 더 유지 기간이 길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유지 기간은 비기간제상용 23개월(1,130천 명), 기간제 14개월(1,315천 명)로 비기간제상용이 9개월 더 유지 기간이 길다.

- 비기간제상용으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약 4년 유지, 기간제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약 2년을 유지함.

• 2023년 20-34세 중 첫 일자리가 현 직장 일 때 비기간제상용 여성은 49개월, 남성 44개월로 여성이 5개월 더 길며 남녀 모두 약 4년 동안 첫 일자리를 유지하였음.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비기간제상용 여성 24개월, 남성 23개월로 여성이 1개월 더 길고 남녀 모두 약 2년 동안 첫 일자리를 유지함.

• 2023년 20-34세 중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일 때 기간제 여성 23개월, 남성 21개월로 여성이 2개월 더 길며 약 2년 동안 첫 일자리를 유지하였음.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는 기간제 여성 15개월, 남성 14개월로 여성이 1개월 더 길며 약 1년 동안 첫 일자리를 유지함.

<표 2> 성별 비기간제상용여부별 첫 직장 유지 기간

(단위 : 개월, 천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여성-남성 기간차
		기간	근로자 수	기간	근로자 수	기간	근로자 수	
비기간제 상용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49	756	44	820	47	1,577	5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24	1,354	23	1,130	24	2,484	1
	전체	33	2,110	32	1,950	33	4,060	1
기간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23	178	21	160	22	338	2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15	1,223	14	1,315	15	2,538	1
	전체	16	1,400	15	1,475	16	2,876	1
전체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44	934	41	980	42	1,914	3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20	2,577	19	2,445	19	5,022	1
	전체	27	3,511	25	3,425	26	6,936	2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여성과 남성 모두 첫 일자리 퇴직 사유는 ‘근로여건 불만족’

-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인 여성과 남성 모두 첫 일자리의 퇴직 사유는 ‘근로여건 불만족’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비기간제상용의 경우 남녀 모두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인 반면 기간제인 경우는 남녀 모두 ‘계약기간이 끝나서’

- 2023년 여성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모두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가 첫 일자리를 퇴직 사유가 가장 높지만 비기간제상용이 기간제에 비해 14.6%p 더 높음. ‘계약기간이 끝나서’는 비기간제상용의 응답에는 없지만 기간제인 경우 21.1%로 두 번째로 높은 사유이며,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는 기간제가 비기간제상용에 비해 6.8%p 더 높음.

- 여성의 첫 일자리 퇴직 사유는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가 비기간제상용 706천명(52.2%), 기간제 460천명(37.6%)으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비기간제상용의 경우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 256천 명(18.9%), 기간제인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서’ 258천명(21.1%) 순으로 높음.

- 2023년 남성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로 첫 일자리 퇴직 사유가 가장 높지만 비기간제상용인 경우가 기간제에 비해 12.7%p 더 높음. ‘계약기간이 끝나서’는 기간제만 응답 하는데 14.4%로 두 번째로 높은 사유이며,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는 기간제가 비기간제상용에 비해 5.7%p 더 높음.

- 남성의 첫 일자리 퇴직 사유는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가 비기간제상용 640천명(56.7%), 기간제 579천명(44.0%)으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비기간제상용의 경우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 177천 명(15.6%),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서’ 189천명(14.4%) 순으로 높음.

-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로여건 불만족’을 퇴직 사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가 사유로 더 높음.

-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첫 일자리 퇴직 사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 순으로 높음.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4.5%p 더 높고,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3.3%p 더 높음.
- 기간제인 경우 여성과 남성의 첫 일자리 퇴직 사유는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순으로 높음.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6.4%p 더 높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계약기간이 끝나서’ 6.7%p,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가 3.5%p 더 높음.

<표 3> 성별 비기간제상용여부별 첫 직장 퇴직 사유

(단위 : 천 명, %, %p)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비율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비기간제 상용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	706	52.2	640	56.7	1,347	54.2	-4.5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87	6.4	68	6.1	155	6.2	0.3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145	10.7	131	11.6	276	11.1	-0.9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	256	18.9	177	15.6	432	17.4	3.3
	창업 또는 가족사업에 참여하려고	23	1.7	35	3.1	58	2.3	-1.4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	6	0.5	14	1.3	20	0.8	-0.8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 등으로	63	4.7	32	2.8	95	3.8	1.9
	직장의 휴업,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47	3.5	17	1.5	65	2.6	2.0
	기타	20	1.5	16	1.4	36	1.4	0.1
	전체	1,354	100.0	1,130	100.0	2,484	100.0	-
기간제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	460	37.6	579	44.0	1,039	40.9	-6.4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75	6.2	80	6.1	155	6.1	0.1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75	6.1	127	9.6	201	7.9	-3.5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	180	14.7	163	12.4	342	13.5	2.3
	창업 또는 가족사업에 참여하려고	20	1.7	19	1.4	39	1.6	0.3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	89	7.3	92	7.0	181	7.1	0.3
	계약기간이 끝나서	258	21.1	189	14.4	447	17.6	6.7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 등으로	39	3.2	33	2.5	71	2.8	0.7
	직장의 휴업,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20	1.6	17	1.3	37	1.5	0.3
	기타	8	0.6	17	1.3	25	1.0	-0.7
	전체	1,223	100.0	1,315	100.0	2,538	100.0	-
전체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	1,166	49.9	1,219	45.3	2,385	47.5	4.6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162	6.1	148	6.3	310	6.2	-0.2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220	10.5	257	8.5	477	9.5	2.0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	436	13.9	339	16.9	775	15.4	-3.0
	창업 또는 가족사업에 참여하려고	44	2.2	54	1.7	97	1.9	0.5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	95	4.3	106	3.7	201	4.0	0.6
	계약기간이 끝나서	258	7.7	189	10.0	447	8.9	-2.3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 등으로	102	2.6	65	3.9	166	3.3	-1.3
	직장의 휴업,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67	1.4	35	2.6	102	2.0	-1.2
	기타	28	1.4	33	1.1	61	1.2	0.3
	전체	2,577	100.0	2,445	100.0	5,022	100.0	-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층의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비교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일 때 현재 일자리도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69.9%인 반면 첫 일자리가 기간제일 때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36.6%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 상용일 때 현재 일자리도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는 69.9%이지만 첫 일자리가 기간제 일 때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는 36.6%로 첫일자리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일 때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 69.9%, 기간제 11.9%인 반면 첫 일자리가 기간제일 때 현재 일자리는 비기간제상용 36.3%, 기간제 34.6%로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는 33.6%p 낮고 기간제인 경우는 22.7%p 높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 일 때,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은 69.9%(2,837천 명)로 가장 높고, 기간제 11.9%(481천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2%(129천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0%(41천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0.6%(22천 명) 순임. 현재 일자리가 없고 구하지 않음은 11.3%(458천 명),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구함은 2.2%(91천 명)임.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현재 일자리도 비기간제상용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함.
- 첫 일자리가 기간제상용 일 때,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은 36.3%(1,045천 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간제 34.6%(994천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3%(122천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45천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0.6%(19천 명) 순임. 현재 일자리가 없고 구하지 않음은 17.2%(496천 명),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구함은 5.4%(155천 명)임.

<표 4>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의 고용형태 교차표(전체)

(단위 : 천 명, (%))

구분		첫 일자리					
		비기간제상용	기간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현재 일자리	비기간제상용	2,837 (69.9)	1,045 (36.3)	13 (10.6)	4 (9.6)	3 (9.7)	3,902 (54.7)
	기간제	481 (11.9)	994 (34.6)	5 (4.4)	4 (8.9)	1 (4.6)	1,486 (20.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29 (3.2)	122 (4.3)	88 (74.3)	1 (2.5)	0 (0.0)	341 (4.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1 (1.0)	45 (1.6)	1 (0.9)	32 (72.1)	3 (8.0)	123 (1.7)
	무급가족종사자	22 (0.6)	19 (0.6)	0 (0.0)	0 (0.0)	22 (68.3)	63 (0.9)
	일자리 없음-구해봄	91 (2.2)	155 (5.4)	0 (0.0)	1 (2.2)	1 (2.6)	248 (3.5)
	일자리 없음-구하지 않음	458 (11.3)	496 (17.2)	12 (9.9)	2 (4.7)	2 (6.7)	970 (13.6)
	전체	4,060 (100.0)	2,876 (100.0)	119 (100.0)	45 (100.0)	33 (100.0)	7,132 (100.0)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모두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고, 첫 일자리가 기간제이고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음

-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가 모두 안정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여성은 65.7%, 남성 74.4%로 남성이 8.7%p 더 높고, 첫 일자리가 기간제이고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여성 34.4%, 남성 38.2%로 남성이 3.8%p 더 높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일 때 여성과 남성 모두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여성 65.7%, 남성 74.4%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과 남성을 비교할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8.7%p 더 높음. 남성에 비해 여성은 일자리가 없고 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8.8%p 더 높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는 여성 65.7%(1,386천 명), 남성 74.4%(1,451천 명)임. 현재 일자리가 기간제인 경우는 여성 12.3%(260천 명), 남성 11.3%(221 명)임.

• 현재 일자리가 없고 구하지 않음은 여성 15.5%(327천 명), 남성 6.7%(131천 명), 현재 일자리가 없고 구해봄은 여성 2.6%(54천 명), 남성 1.9%(37천 명) 임. 되었음. 대졸이상은 동일하게 8개월임.

- 첫 일자리가 기간제일 때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는 남성 38.2%, 여성 34.4%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3.8%p 더 높고, 현재 일자리가 기간제인 경우는 여성 34.4%, 남성 34.7%로 남성이 0.3%p 더 높음.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은 경우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7.9%p 더 높음.

•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경우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은 여성 34.4%(481천 명), 남성 38.2%(563천 명) 임. 기간제인 경우는 여성 34.4%(482천 명), 남성 34.7%(512천 명)임.

• 현재 일자리가 없고 구하지 않음은 여성 21.3%(298천 명), 남성 13.4%(198천 명), 일자리가 없고 구함은 여성 5.0%(70천 명), 남성 5.8%(85천 명) 임.

<표 5> 성별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의 고용형태 교차표

(단위 : 천 명, (%))

구분		첫 일자리											
		비기간제상용		기간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현재 일자리	비기간제상용	1,386 (65.7)	1,451 (74.4)	481 (34.4)	563 (38.2)	3 (5.2)	10 (15.2)	3 (23.4)	1 (3.1)	3 (20.1)	0 (0.0)	1,877 (52.2)	2,025 (57.3)
	기간제	260 (12.3)	221 (11.3)	482 (34.4)	512 (34.7)	2 (4.0)	3 (4.7)	0 (0.0)	4 (13.1)	1 (9.5)	0 (0.0)	746 (20.8)	740 (20.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0 (2.9)	69 (3.5)	48 (3.4)	75 (5.1)	40 (73.4)	49 (74.9)	0 (0.0)	1 (3.7)	0 (0.0)	0 (0.0)	148 (4.1)	193 (5.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3 (0.6)	28 (1.5)	10 (0.7)	35 (2.4)	0 (0.0)	1 (1.6)	9 (61.9)	23 (77.0)	0 (0.0)	3 (15.6)	32 (0.9)	90 (2.6)
	무급가족종사자	10 (0.5)	12 (0.6)	11 (0.8)	7 (0.5)	0 (0.0)	0 (0.0)	0 (0.0)	0 (0.0)	10 (61.5)	13 (74.7)	31 (0.9)	32 (0.9)
	일자리 없음-구해봄	54 (2.6)	37 (1.9)	70 (5.0)	85 (5.8)	0 (0.0)	0 (0.0)	1 (6.8)	0 (0.0)	0 (0.0)	1 (5.1)	125 (3.5)	123 (3.5)
	일자리 없음-구하지 않음	327 (15.5)	131 (6.7)	298 (21.3)	198 (13.4)	9 (17.4)	2 (3.6)	1 (8.0)	1 (3.1)	1 (9.0)	1 (4.6)	636 (17.7)	333 (9.4)
	전체	2,110 (100.0)	1,950 (100.0)	1,400 (100.0)	1,475 (100.0)	54 (100.0)	65 (100.0)	15 (100.0)	30 (100.0)	16 (100.0)	17 (100.0)	3,595 (100.0)	3,537 (100.0)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요약 및 시사점

■ 2023년 20-34세 청년층의 첫 일자리의 직업 분포, 유지 기간 및 퇴직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첫 일자리의 직업은 남성의 경우 여러 직업에 고르게 분포하나 여성은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여성은 기능·기계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 낮음.
- 일자리 유지 기간은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이면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의 여성이 49개월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같은 조건의 남성이 44개월로 약 4년을 유지함.
-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인 여성과 남성 모두 첫 일자리의 퇴직 사유는 ‘근로여건 불만족’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비기간제상용의 경우 남녀 모두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인 반면 기간제인 경우는 남녀 모두 ‘계약기간이 끝나서’임.

■ 첫 일자리를 기간제로 시작한 경우 비기간제상용으로 이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갖기 위해 취업을 늦추는 전략을 취하는 요인일 수 있음.

■ 일자리가 없으나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응답은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에 비해 기간제가 더 높고 이를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이 더 높아 구조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성별 차이도 보이고 있어 일자리가 없지만 구하지도 않은 청년층의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참고문헌

통계청(2023.7).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13)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23) 마이크로데이터.